

현장실습으로 농생명 맞춤형 인재양성

전북대 4개 단과대학 53명... 다양한 진로 모색

전북대학교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현장실습생을 파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내일부터 파견되는 현장실습 학생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공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인문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이 53명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15명), 축산과학원(9명), 원예특작과학원(4명), 식량과학원(9명),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7명), ▲국가식품클러스터(5명), ▲생물산업진흥원(3명), ▲전라북도 국제 교류센터(1명) 등에 파견된다.

현장실습 시작에 앞서 24일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시청각실에서 학생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교육이 열렸다. 각 기관별로 사전준비사항과 맞춤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현장실습은 행정업무 및 실

실, 농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를 미리 경험해보므로써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농생명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경향이 치열했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서 그간 농업과학원과 축산과학원으로 집중되었던 농업분야 현장실습을 식량과학원과 원예특작과학원으로 확대시켜 농생명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실습 토대를 만든 만큼 학생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현장실습이 본 시험사업과 두 기관의 협력 및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용 사업단장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전북지역 주요 농생명 산업 기관들의 현장실습 기관소개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의 기관 이해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중도탈락율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키는데 의미가 크다"며 사전 교육



전북대학교가 현장실습 시작에 앞서 24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시청각실에서 학생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교육을 했다.

을 진행하게 된 의도를 강조했다. 사업단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한 학생(전북대 농생명학과)은 "졸업을 앞두고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해 고민이 많았다"며 "원하는 기관

에 파견되어 기쁘고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희망하는 기관의 직무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특별교육 실시... 미이수 땀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인박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교

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 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의 직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학교를 나오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결석이

이뤄지면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 전담 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관련 규정을 내년 1월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법령에서 특성화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평준화지역 학교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전·입학을 학교장끼리 요청하고 승인해왔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민약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대상 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 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내년 2월 시·도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지침 개정 전이라도 이번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정책협의 합의서 조인식 가져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 양측 대표가 24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8 정책업무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양측 대표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15개 정책업무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학교에 유치원

전용차량 지원 △상당달 운영 개선 △보건의사의 교실수업 공백에 대한 방안 마련 △영양교사 업무보조인원 배치 노력 △학교업무최적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확대 등이다.

또 △교원의 연가권 보장 △학부모·교사 간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

지원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안내 △학교폭력 대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안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방안 마련과 시행 △단체보험 가입과 청구방안 개선 기간제교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등도 포함됐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꿈나무 발굴 포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 제17회 '2018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발명 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고 과학·발명 꿈나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교육 진흥에 기여하며 전북 과학·발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내 초·중·고 학생 중 과학 및 발명 관련 대회 입상실적과 특허관련 실적 등 2018년 한 해 동안 과학·발명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는 학

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14일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노민준 (전주만성초 5) ▲권영서 (진안오전초 5) ▲김민혁 (군산산북중 3) ▲오소연 (고창영선중 2) ▲차이현 (전북과학고 2) ▲유다은 (이리여고 1) 등 총 6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학·발명 분야의 우수학생 발굴 및 시상으로 과학활동 참여도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우수 학생의 지속적인 과학활동 유도로 이공계 진로를 유도하고 전북 과학교육 및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고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탄기부로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

연탄기부로 사랑의 온도 높여

정읍고 1학년, 성금모아 연탄 1천장 기부

정읍고등학교(교장 이석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탄기부로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

최근 정읍고 1학년 학생들은 초산동 독거노인 주민 4가구에 연탄 1천장의 '연탄기부' 행사를 펼쳤다.

연탄기부는 꿈·끼 UP, 배움 UP을 슬로건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읍고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낄 수 행사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기 초부터 교내 체육대회,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받은 성금을 연말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지는 학생들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했다. 단 순히 성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정 보를 얻게 되어, 전주 연탄은행

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석준 교장선생님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적은 금액이어나마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사랑의 바이러스' 효과는 학생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까지 따뜻

한 온기를 주는 행복한 바이러스로 퍼져 나가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따뜻한 정과 사랑을 지닌 정읍고등학교 학생들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 정읍 시민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년부장(교사 강해순)은 "이웃돕기라는 좋은 취지가 다른 학급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자발적 성금이 보태지고 또, 1학년 학생 전원이 직접 연탄 나르 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해 더욱 가치 있고 뜻깊은 행사로 확대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